2019-10-15 CPI Bunker

최연실

주제: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출처: 이상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통권152호, 2019.10.7]

<http://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 회담 결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

… 미 국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되살펴보았으며, 양측이 관심을 가진 많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집중적인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북한 대표들과) 논의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이 각각 진전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들(initiatives)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반면에 북한 측은 미국 대표단이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되 풀이하였다고 회담 내용을 소개하였다.

…북한 대표단이 회담 결렬을 선언한 것도 북한이 요구한 계산 법을 미국이 “하나도 들고 오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양측이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컸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도된 것처럼 **석탄과 섬유 수출에 대한 제재 유예의 대가가 영변 핵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우라늄 농축의 완전한 중단이었다면 북한으로서는 값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영변 폐기 대신 민생 관련 제재 전부의 해체를 요구했던 하노이 회담 당시와는 달리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두 방면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국군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평양 설치 등을 안전보장 조치로 제시하였다면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 등이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의 후속회담 무응답 이유

…기존의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도 회담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제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던 미국이 유연한 접근,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세우며 새로운 구상을 제시한 것은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회담 재개를 미루면서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결과라고 북한은 판단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실제적 조치”를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탄핵을 둘러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승리를 장담했던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성이 적지 않다. 반면에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해왔다. 중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는데다 중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안정된 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참모 들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다. 마찬가지로 북한 대표단은 시간이 북한의 편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스톡홀름 회담의 결렬을 선언하였을 것이다.**

▶ 회담 재개와 ‘새로운 길’ 사이에서

**미국이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두 측면에서의 추가적 양보를 포함한 방안을 어렵사리 마련하여 회담 재개를 요청한다면 북미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북한이 또 다시 결렬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의회의 탄핵조사와 대선 등으로 쫓기는 입장이 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 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게 계속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협상 재개를 위한 요구 수위를 낮추지 않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할 경우 미국이 먼저 협상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내에 북미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거나 미국이 협상 종결을 선언할 경우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게 군사적 개입이나 추가적 제재의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 러시아 등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상황을 관리하는 식으로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선택은 장기적 방책이 될 수 없다. 우선 북한은 염원해 온 경제발전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의 추가적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이 없더라도 비핵화 거부를 명분으로 최대압박정책을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차원의 제재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압박은 북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것이 분명 하다.

1. 세종연구소

[출처: 정성장,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 전환 방향,”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2019-26 (2019.10.07)]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4966>

…앞으로 3개월 동안 북미실무회담 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협의를 해도 연말까지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방안을 미국에게 연말까지 제시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김명길 대사는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 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라고 밝힘으로써 ‘선(先)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 후(後) 비핵화’라는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북미실무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비핵화 조치 논의를 원한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 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며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정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북한은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북․중 관계가 매우 좋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해도 중국이 북한편이 되어줄 것이라 고 판단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오판이다.** 시 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핵과 미사일 능 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다시 2018년 이전의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중국도 국제사회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보다 대담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과거에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맡겨야 할 것이다.** 리용호 현 북한 외무상과 김명길 현 북미실무회담 대표 모두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동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최룡해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 협상 추진 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1. 조선일보

[출처: 태영호, “[朝鮮칼럼 The Column ] '성동격서' 전술 북한의 진짜 노림수,” 조선일보, (2019.10.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4/2019100403113.html>

SLBM 쏜 북한, 이번 스톡홀름 회담서 성공 여부에 관심 없어  
대사 역임한 北 협상 책임자 여생 편히 살 수 있는데 무리해서 타결안 안 만들 것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으면서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북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들여다보면 돌파구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 장소·날짜까지 합의해 놓고 불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협상 성공 여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오만함을 보였다.  
  
미국과 대화를 3차례의 정상 상봉 수준까지 승화시켰던 북한은 이번에 미국과 처음 만나는 듯 실무협상에 앞서 예비 접촉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끼워 넣었다. **외교에서 예비 접촉은 한번 만나본다는 의미인데 협상 장소에 도착해 예비 접촉 단계를 만든 것은 미국 입장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변화가 없으면 짐을 싸 돌아간다는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스톡홀름으로 떠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협상장으로 간다"고 했다. '싱가포르 합의'대로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논의를 먼저 한 다음 비핵화 문제를 단계별로 토의해야 한다는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 실패 책임을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못한 미국에 돌리면 된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경질하고 리비아식 모델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 비핵화의 최종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을 협상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보다는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춰 내년 대선까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 대화의 장에 묶어 두려는 데 있어 보인다. 북한도 미국의 이러한 속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스톡홀름으로 간 것은 북한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을 것이다.  
  
지금 김정은의 동선을 보면 연내 미·북 정상회담에는 별로 의욕이 없어 보인다. 북한 사람치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김정은의 최대 관심은 북·중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계기로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무상 원조를 받아 북한의 힘든 고비를 넘기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북한이 실무협상에 응한 것은 미국과 협상하는 흉내라도 내야 김정은의 베이징 입성을 승인할 수 있다는 중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평양을 방문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라고 권고했다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하는 수모를 당했다. 며칠 전 왕이는 유엔총회에서 미·북 사이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독촉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위해 대북 제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 협상해 보라는 시진핑의 요구를 한 번도 들어주지도 않고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경제 원조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필자에게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협상 장소와 시간까지 먼저 공개하면서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 절박감보다는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디딤돌을 빨리 마련하려는 절박감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어떤 타결이 나오기 힘든 것은 협상에 나오는 북한 외교팀의 자세와도 관련된다. 이번 북한 외무성 협상팀은 지난번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협상 대표였던 김혁철이 경질되고 김계관 외무성 1 부상이 고문으로 내려앉는 과정을 다 목격한 인물들이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때만이 3차 정상회담에 나가며 북한의 입장이 담겨진 문건에만 사인하겠다고 했다. 실무팀이 김정은의 이러한 눈높이에 맞춘 문건을 미국과 만들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번 협상 책임자 김명길은 북한 외무성 1부상 최선희보다 상급자였고 외교관으로서 마지막 자리인 대사까지 한 인물이어서 실책만 범하지 않으면 영예롭게 퇴직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인물이다.** 그가 과욕에 사로잡혀 모험이나 융통성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스톡홀름 협상이 북한 비핵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득이 되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